

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			
연구과제명	독일 자본시장법상 분쟁에 관한 모범(표본)소송절차의 운영현황		
연구수행자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(책임연구원 : 김경옥 고려대 교수)		
연구자 선정방식	2회 공고 후 수의계약		
연구기간	2014. 6. ~ 2015. 2. (8개월, 부가세 포함 2,900만 원)		
연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독일은 2005년 자본시장법상의 분쟁에 있어서 표본절차에 관한 법률을 5년간 한시 법률로 제정하였다가, 2012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문제점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음 ▶ 위 법률은 “동일방향이익의 결합청구를 통해, 신속한 사건처리, 소송비용 및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- 지방법원(수소법원)이 총 10명 당사자의 표본절차신청에 의해 제시결정을 하면, 고등법원에서 표본절차 진행하여 표본재판을 선고하고, 다시 수소법원에서 원소송절차를 재개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- 전체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으나(▶ 유효기간 연장), 절차지연 및 업무부담 증가 등 개선의 필요성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(▶ 소비자법, 환경법 등에 확대되지 못함) ▶ 연구자는, “절차의 신속 및 업무의 부담경감” 문제의 개선이 표본절차 운용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, 법률제정 후 수년간 모범소송절차의 시행경과와 성과,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, 독일 실무가들과의 직접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그에 관한 생생한 의견까지 충실히 담아내었음 		
평가항목	상	중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○		
내용의 완결성	○		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○		
참고문헌의 충실도	○		
학술적, 실무적 가치	○		
제출기간 준수		○	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○		
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	○		
평과 결과 총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소비자분쟁·환경·의료·개인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상의 쟁점이 공통되는 대규모의 집단적 손해배상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, 이미 증권관련 집단소송(2005), 소비자단체소송(2008) 및 개인정보단체소송(2011)이 법률상 시행되고 있음 ▶ 연구결과는, “신속하고 효율적인 표본절차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사소송의 처리절차를 채택하여, 집단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절차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고 사료됨 		
공개 여부	공개(사본형태로 공개)		
과제담당관	소속(직급) : 사법지원실(심의관) 성명: 김영현		
※ 작성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법원행정처			